

토론 주제 - 플라스틱 놀잇감의 필요성과 그 밖의 의견

현재 우리 터전에서는 플라스틱 놀잇감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번 학기 초, 교사회에서 솔찬방 아이들이 가지고 놀만한 놀잇감이 부족한 듯하니, 일반 어린이집에서 놀잇감으로 이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와플 블록(사각 블록)을 사서 솔찬방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엄마 모임과 이사회 등에서 논의한 결과, 몇몇 이유로(각 가정에도 많은 플라스틱 장난감이 있는데 터전에까지 있을 필요가 있을까? / 솔찬방 아이들을 위한 놀잇감으로 마련한다 하더라도 형님들이 가지고 놀다보면 정작 솔찬방 아이들은 못 가지고 놀지 않을까? 등) 플라스틱 블록은 마련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샘물의 말씀에 의하면, 플라스틱 와플 블록이 예전에 터전에 있었고 아이들이 매우 잘 가지고 놀았다고 한다. 하지만 한 아마의 의견(터전에서까지 플라스틱 놀잇감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으로 인해 플라스틱 블록을 터전에서 치우게 되었고, 이것이 사라지자 아이들은 그때까지 잘 가지고 놀지 않던 나무 블록으로 눈을 돌려 그것을 이용해 놀기 시작했다고 한다.

실제로 다양한 방향으로 서로 결합시키며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플라스틱 와플 블록은 아이들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며 다양한 놀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기 초의 플라스틱 놀잇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터전에서 플라스틱 놀잇감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보고, 각자 플라스틱 놀잇감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한다.

*** 플라스틱 놀잇감에 관한 나의 생각은?**

<참고 자료>

(1) 발도르프 교육과 플라스틱 놀잇감

- 발도르프 교육은 20세기 초 독일의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가 인지학을 바탕으로 고안한 교육 방법으로, 슈타이너 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키우는 것으로, 획일적인 교육은 피하고, 아이마다 고유의 재능과 개성을 발견하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놀잇감들은 기능이 정해져 있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생산품들이 아닌 크고 작은 천, 등근 나무토막들, 돌, 조개껍질, 말린 과일, 씨앗 등의 여러 가지 자연물이 제공되어 아이 나름대로 상상력과 조형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놀이를 하며, 놀이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종이와 나무 같은 온기가 있는 재료들이 아이들의 손에 닿을 때, 플라스틱이라는 차가운 재료가 주는 느낌과는 분명히 다르며, 이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플라스틱이나 합성자료로 된 교구들을 많이 사용해왔으며 학습자료들도 물질 문명화된 자료들을 많이 취급 해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인간교육의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사용해왔다.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기계적, 인공적 학습자료를 거부하고 로봇이나 자동차와 같은 장난감을 기피하며, 대신에 자연적인 진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 자연적, 계절적 감각이 있는 물질로 환경을 꾸민다. 부모님이 만든 형견 인형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학습자료와 환경면에서도 인간적인 배려를 해준다.

(2) 플라스틱 놀잇감의 유해성

- 아이를 위협하는 장난감 (환경미디어 기사 발췌)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입고, 먹고, 쓰는 물건 하나하나가 고민거리다. 장난감도 예외는 아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류 장난감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장난감은 그 자체가 화학물질이다. 문제의 요인은 첨가된 가소제다. 딱딱한 PVC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성질을 물렁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사용된다. 이는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로 이중 DEHP와 DBP 등은 생식 독성과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입에 물고 빨면 침에 용출된 유해물 질이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순식간에 몸속으로 들어간 유해물질은 소량이라도 치명적이다. 여아에게는 성조숙증, 남아에게는 생식기의 기형이나 무정자증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프탈레이트 중 DEHP 유해물질은 동물실험에서도 유방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아이들은 소화관을 통한 화학물질 침투율이 성인보다 높고 몸 안에 더 쉽게 축적된다.

- 우리 생활 속 숨은 '독'...위험한 '플라스틱'

*영상 자료(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N69nvWbaLOE>

(3) 플라스틱과 환경오염

- 플라스틱의 역습

*영상 자료(EBS: 뉴스 G) <https://www.youtube.com/watch?v=LrI15MtKpSw>

(4)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의 놀잇감

-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답변 발췌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놀잇감은 가능한 자연물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연물만을 고집하지는 않고, 생활용품이나 부모와 교사들이 만든 놀잇감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놀잇감도 있고, 상업용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은 되도록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놀잇감은 크게 실내와 실외 놀잇감으로 나눕니다.

실내 놀잇감은 하루 흐름 속에 수시로 이뤄지는 자유놀이 때 사용되므로, 아이들의 연령과 놀이 성향, 계절, 놀이흐름을 고려하여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만 해도 소재에 따라 종이블록과 나무블록이 있고, 형태에 따라 비정형의 나무 막대, 카프라가 있습니다. 소·대근육 발달이 안정되지 않은 3~4세 유아들을 고려해서 무겁지 않고, 구성하기 쉬운 종이블록을 배치하는 것이 놀이에 집중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놀이공간에 블록 외에 보자기, 끈, 인형 그리고 무게와 모양이 다른 나무블록 같은 다른 놀잇감이 함께 있다면, 놀이의 형태와 놀이의 내용도 다양해 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놀이를 구성할 수 있는 힘도 성장하게 됩니다. 발달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큰 아이들은 보통 블록보다는 카프라 같이 가볍고 다루기 까다로운 블록에 도전해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놀잇감을 접하는 것,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난이도 높은 놀이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긴장감을 느끼고 도전하고 싶은 의욕을 갖는 것이 놀이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 합니다.

터전에서 아이들의 발달과 놀이성향, 어린이집의 교육철학이 담긴 어떤 놀잇감이 필요한 지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동육아 아이들의 놀이와 놀잇감' (이부미,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발표 자료 발췌

공동육아 어린이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생활용품은 의자이면서 책상인 공동육아표 의자이다. 아이들은 이 의자를 연결하여 기차도 만들고 큰 구성물을 만들 때 기본 건축구조로 활용한다. 역할놀이와 블록놀이는 자주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외를 통 털어 어찌 보면 너무 많지 않은 놀잇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놀잇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종이로 장난감을 만드는 아이들을 보면 그 능력이 놀랍다. 우선 놀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놀잇감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최소한의 실물다운 디자인을 하였다.